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 6

이해충돌방지과 윤리경영

2023 June

|

Vol. 126





## COVER STORY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지 1주년을 맞았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고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되짚어 보고,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더 필요할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또한 청렴하고 윤리적인 경영의 우수 사례로 꼽히는 기업들은 이해충돌방지(conflict of interest prevention) 정책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모범적 모델로 소개하고, 민간기업들도 참고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 정책 마련 가이드와 구성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

<b>01</b>	<b>전문가 코칭</b> .....	<b>04</b>
	이해충돌방지 컴플라이언스   이명신 변호사	
<hr/>		
<b>02</b>	<b>사례돌보기</b> .....	<b>06</b>
	에너지·인프라 산업 이해충돌방지 체계	
<hr/>		
<b>03</b>	<b>보고서리뷰</b> .....	<b>12</b>
	프랑스 부패방지청 ‘이해상충방지 가이드’ AFA (Agency France Anti-corruption), Preventing Conflicts Of Interest In The Private Sector (2021, 11).	
<hr/>		
<b>04</b>	<b>행동하는 윤리경영</b> .....	<b>17</b>
	이해충돌방지 정책 작성 매뉴얼	
<hr/>		
<b>05</b>	<b>문화 속 기업윤리</b> .....	<b>22</b>
	윤리 실천과 이해충돌   도서 ‘왜 원칙은 흔들리는가’	
<hr/>		
<b>06</b>	<b>뉴스클립</b> .....	<b>23</b>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동향 국내외 동향	
<hr/>		
<b>07</b>	<b>웹툰 윤리네컷</b> .....	<b>26</b>
	윤리적 직무수행과 이해충돌방지	
<hr/>		
<b>08</b>	<b>행사소식</b> .....	<b>27</b>
<hr/>		
<b>09</b>	<b>퀴즈</b> .....	<b>29</b>

---



## 이해충돌방지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코칭



**이 명 신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번 호에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명신 변호사님과 인터뷰를 통해 이해충돌방지법과 기업의 이해방지 정책, 컴플라이언스 그리고 이해방지 정책 운영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한 고견을 들어보고자 한다.

### **Q1>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지 1주년이 되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사회 청렴'을 높이기 위한 시행 목적에 어떻게 기여했을까요?**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이나 직무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직무에 관한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시행은 우리나라 공직 청렴 제도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쪽짜리 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오던 청탁금지법의 불완전성을 보완하여 제도의 완결성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실현함으로써 청렴 선진국의 대열에 오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 및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의무를 법제화하고,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와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동시에 부당이익을 환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의 사익 추구 의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높은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사회구조에서 공공 영역과 민간 영역의 접합점이 확대되는 가운데 공직자는 다양한 이해충돌 상황에 놓일 수 있고 사익 추구 유혹에 빠지거나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딜레마에 봉착할 수 있는데, 이해충돌방지법은 그 해결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다는 데에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성과를 논하기는 이른 감이 있고 앞으로 운용 경과를 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법제화는 강력한 예방효과를 통해 공직 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 신뢰의 확보에 유의미하게 기여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제도가 잘 정착되려면 엄정하고 효율적인 운용이 필수적이므로 시행기관의 의지가 중요할 뿐 아니라, 각 기관의 실정에 맞는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오랜 기간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운용해 온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Q2) 기업들이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데 유의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대상은 공공 영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직무상 관련된 기업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해충돌방지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그만큼 기업의 준법경영 부담이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공공 영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거래를 진행한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고, 이는 재무적 리스크는 물론 조사나 수사에 따른 기업의 평판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 과정에서 직무 관련 공직자의 가족이 상대방이 되거나 기업의 퇴직 임원이 공직자가 된 경우 등 사적 이해관계자가 개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그와 같은 사정이 존재한다면 해당 공직자에 대한 기피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공직자의 신고나 회피 없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그로 인한 이익을 환수당할 수 있어 기업 활동에 예상치 못한 큰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공 영역의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사업을 진행한 기업은 부당이득을 환수당할 뿐 아니라 관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까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필수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내용을 내부통제 등 준법경영 시스템에 반영할 것이 요구됩니다. 기업 활동이 공공 영역과 결부될 때에는 반드시 직무 관련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등 이해충돌 상황이 있는지를 사전에 체크하고 그 여부에 따른 조치도 함께 규정해야 하며, 경영진 및 준법감시부서는 그 운용의 적절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해충돌 진단 체크리스트를 시스템화하고 주관 부처와 각급 공공기관의 제도 운용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최근 기업가치 평가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ESG 경영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긍정적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에너지 인프라 산업 이해충돌방지 체계

### 사례돌보기

에너지 산업은 국가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는 기간산업이자 다른 산업에 연료를 공급하는 근원이 된다. 때문에 에너지 기업의 부패로 인한 비용이 전가되면 전반적인 물가상승을 불러온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 산업은 사회 전체에 동력을 공급하기 때문에 사회간접자본의 성격을 갖기도 한다. 이렇듯 에너지 산업은 국민의 일상생활까지도 직접 연결된 중요한 산업으로, 반부패 노력 및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에너지 산업은 막대한 산업 및 수입의 규모, 정부의 지원금, 산업의 복잡성, 소유권 구조 등의 요인으로 가장 부패에 취약한 산업 중 하나로 지적된다.

따라서 이번 사례 돌보기에서는 에너지 및 인프라 기업 중 높은 윤리성 청렴성을 달성한 기업들을 모범사례로 살펴봄으로써 구독자가 이해충돌방지와 청렴윤리경영을 실행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이하의 해외사례에서는 ‘Conflict Of Interest’를 ‘이해충돌’로 해석하였다. 이는 이해충돌을 ‘공직자의 공적 의무와 사적 이익 사이의 충돌’로 보는 우리나라 「이해충돌방지법」<sup>1)</sup>과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sup>2)</sup> 정의와는 차이가 있다. 다만, 민간영역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에 대해서는 정확한 용어가 없으므로, 이에 프랑스 부패방지청(AFA, Agency France Anti-corruption)은 「공직사회의 투명성법(Transparency in Public Life Act, 2013)」 등을 참고하여, 이 용어를 민간영역까지 포괄하는 일반적 범주로 확장하여 다음과 같이 재정의한다. “이해충돌이란 조직 내 개인의 의무와 이익이 충돌하는 모든 상황을 말한다. ‘개인의 이익’은 독립적, 공정적, 객관적으로 개인이 조직을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할 때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sup>3)</sup> 이를 참고하여 해외 사례의 ‘Conflict Of Interest’를 일반적 범주에서의 ‘이해충돌’로 해석하고자 한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 제4호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2) 이해충돌이란 공직자의 공적 의무와 사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것으로, 공직자의 공적 의무와 책임 수행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원문: A 'conflict of interest' involves a conflict between the public duty and private interests of a public official, in which the public official has private-capacity interests which could improperly influence the performance of their official duties and responsibilities.) 출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OECD Guidelines for Managing Conflict of Interest in the Public Service (2003.05.28)

3) 원문: “any situation of interference between a person’s duty within an organisation and their personal interest that could influence or appear to influence the independent, impartial and objective performance of such duty on behalf of the organisation”. 출처: AFA(Agency France Anti-corruption), Preventing Conflicts Of Interest In The Private Sector(2021, 11).

## 1. 이베르드롤라(Iberdrola)

이베르드롤라는 1992년 스페인 빌바오에 설립된 에너지기업으로, 미국의 윤리경영 컨설팅기업 '에티스피어 (Ethisphere Institute)'의 연구조사 결과, 2017년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 세계 36위, 스페인 1위로 선정되었다.

이베르드롤라는 '최고의 윤리기준'을 시행하기 위해 거버넌스와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윤리원칙과 규정준수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시스템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이사회 안에 광범위한 권한, 예산 자율성 및 행동의 독립성을 부여한 소위원회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Sustainable Development Committee)'를 두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윤리강령 적용 개선이나 촉진을 위한 제안을 통해 이베르드롤라의 윤리경영 시스템을 고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이베르드롤라는 임직원이 윤리, 준법 행동지침을 준수하면서 윤리적 행동을 이끌기 위해 컴플라이언스 총괄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선출된 '사내윤리전문가'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2021년 기준, 그룹사 전체 약 50여 명이 활동 중인 사내윤리전문가는 각종 그룹사에서 신고되는 이해충돌 사례를 검토·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전문가들은 컴플라이언스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2021년 컴플라이언스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경영진과 그룹 내 핵심 임직원로부터 이해상충에 관련된 2,870건의 신고가 수집되었으며, 컴플라이언스 부서는 신고된 모든 사항을 분석한 후 31건의 구체적인 예방 조치를 권고하였다. 또한 고위경영진 한 명이 잠재적 이해충돌에 해당됨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 윤리강령 조항을 준수하도록 조치하였음을 공시하고 있다.

### 〈이베르드롤라의 이해상충 관련 규정(발췌)〉

1. (이해상충의 규정) 개인의 이익과 기업 이익 사이에 직간접 차이가 있는 상황으로 그 문제가 해당자 및 관련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관련자 범위) 배우자 및 유사관계, 직계 및 형제자매, 대리인을 통한 법 통제 대상 등
3. (이해상충 유형) 관련자를 통한 이베르드롤라 내의 모든 금융거래, 관련자(기업)과의 계약거래 등
4. (대처방법) ①커뮤니케이션: 거래시작 혹은 사업종료 전 가능한 빠르게 보고,  
②독립성: 회사 및 주주에 대한 전문성, 충성심을 갖고 행동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이익이 이베르드롤라의 이익을 우선해서는 안됨,  
③배제: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 심의참여 및 정보접근을 삼가함

출처: 이베르드롤라 Code of Ethics

## 2. 에퀴노르(Equinor)

에퀴노르는 노르웨이 에너지 기업으로 석유 및 가스, 재생 에너지 및 저탄소 솔루션을 포함하여 2050년까지 넷제로(Net-Zero)<sup>4)</sup> 에너지 회사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에퀴노르는 윤리경영 실천과 해당 법률 준수를 위해 '어떤 형태의 부패도 용납하지 않으며(무관용 원칙), 사업활동과 관련한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되,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을 웹사이트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서 공시하고 있다. 직원의 이해충돌 상황에 대해서 '직원이 자신의 일과 투자를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함'을 밝히고 동시에 직원이 기업을 대표하여 일할 때 에퀴노르의 최대 이익을 위해 행동하기를 기대하며, '실질적, 잠재적 또는 인지된 충돌이 있는 상황을 피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에퀴노르는 조직문화를 통해 기업의 윤리경영 실천을 고도화할 수 있다고 본다. CEO 메시지를 통해 기업의 가치창출 능력은 '높은 윤리, 안전 및 보안 기준을 적용하여 직원, 소유주, 비즈니스 파트너, 국가 및 사회로 구성된 이해관계자와 신뢰관계를 구축하는데 달려있다'고 강조하면서, 윤리문제에 대한 열린 대화와 개방적이고 정직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고자 한다. 그 일환으로 '행동강령 포스터'를 배포하여, 임직원에게 쉽고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윤리행동강령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 <에퀴노르 행동강령 포스터와 주요내용>



**Code of conduct**

We believe that conducting business in an ethical and transparent manner is not just the right way to work, but is the only way to work.

- We treat ethics as an integrated part of our business
- We comply with applicable laws, act in accordance with our values and the Code of Conduct when performing our business
- We deal openly with ethical dilemmas and spend sufficient time on difficult decisions
- We expect our suppliers and partners to have high ethical standards
- We speak up if we suspect violation of the Code of Conduct or other unethical behavior

[www.equinor.com](http://www.equinor.com)

1. 우리는 윤리를 비즈니스의 일부로 여긴다.
2. 우리는 사업을 진행시킬 때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에퀴노르의 가치와 행동 강령에 따라 행동한다.
3. 우리는 윤리적 딜레마를 공개적으로 다루고, 어려운 결정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한다.
4. 우리는 공급사 및 파트너가 높은 윤리적 기준을 가질 것을 기대한다.
5. 우리는 행동강령 위반 또는 기타 비윤리적 행동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보고한다.

출처: 에퀴노르 Code of Conduct

4) 넷제로: 온실가스의 배출량(+)과 흡수량(-)을 같도록 해 순(Net)배출을 0(Zero)로 만드는 것을 뜻함.

출처: ESG경제

### 3.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는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청렴한 기업 분위기의 구현과 제도 정착을 위해 2022년 3월 이해충돌방지 경영을 선포하고, 4월에 직원의 인식수준 향상을 위한 ‘임직원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였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 인식수준 진단을 실시하여 임직원이 관련 내용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파악하였다. 2022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서 공시한 진단 결과에 따르면,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직원은 46%로 나타났으며, 10대 행위기준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자는 32%, 사적이해관계의 범위는 49%, 신고절차는 34%의 응답자가 알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또, 인식수준을 향상시키고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에 내·외부 이해관계자 대상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서약을 통해 인식수준을 제고하였고, 전력사업의 주요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 협약’을 체결하여 청렴문화 확산을 지원하였다. 특히 2022년 5월 18일에는 고위직 간부를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하여 이해충돌방지법 특강과 전직원 대상 e-러닝을 통해 ‘알기 쉬운 이해충돌방지법’ 수업 등을 제공하였다.

이처럼 한국전력공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이행 차원에서 시작하여, 임직원 교육과 훈련 등을 통해 청렴문화로 자리잡도록 이끌고 있으며, 이런 노력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시행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으로 평가되는 결과를 얻었다.

#### <한국전력공사의 이해충돌예방을 위한 과정>



출처: 한국전력공사 2022\_지속가능경영보고서

---

## 참고

- 한국전력공사 2022\_지속가능경영보고서  
<https://home.kepco.co.kr/kepco/SM/A/htmlView/SMAFHP001.do?menuCd=FN290106>
- 이베르드롤라 2022\_Code of Ethics  
[https://www.iberdrola.com/documents/20125/41995/code\\_of\\_ethics.pdf](https://www.iberdrola.com/documents/20125/41995/code_of_ethics.pdf)
- 이베르드롤라 2021\_Compliance System Transparency Report  
[https://www.iberdrola.com/documents/20125/41851/IA\\_TransparencySistemComplianceReport2021.pdf](https://www.iberdrola.com/documents/20125/41851/IA_TransparencySistemComplianceReport2021.pdf)
- 에퀴노르 Code of Conduct  
<https://cdn.equinor.com/files/h61q9gi9/global/0dc51c0793705c544b55c72de099a2520b4a8ef7.pdf?code-of-conduct-2023-equinor.pdf>
- 에퀴노르 Ethics and compliance in Equinor  
<https://www.equinor.com/about-us/ethics-and-compliance>
- 에퀴노르 Awareness questions for accepting hospitality  
<https://cdn.equinor.com/files/h61q9gi9/global/90c35b7bb8dedc2260ee150e1bfaed0e184de0c1.pdf?awareness-questions-for-hospitality-equinor.pdf>





## 민간영역의 이해충돌방지 가이드

■ 보고서: 프랑스 부패방지청(AFA, Agency France Anti-corruption), Preventing Conflicts Of Interest In The Private Sector(민간영역의 이해상충 방지)(2021, 11).



프랑스 부패방지청(AFA, Agency France Anticorruption)은 프랑스의 반부패 기관으로, 1993년 Sapin I (프랑스의 '투명성, 반부패 및 경제활동의 현대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부패방지처(SCPC, Service Central de prévention de la corruption)를 20년 후 강력한 독립기구로서 확대 개편한 기관이다. AFA는 2021년 11월 민간부문에서의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보고서인 'Preventing Conflicts Of Interest In The Private Sector'를 발간하였다. 이 가이드는 기업의 부패 위험과도 연관되는 이해충돌 문제 대한 내용과 관련 위험을 식별하는 방법, 그리고 예방 및 관리하기 위해 기업이 실행해 볼 수 있는 방법을 국가법 및 판례와 함께 정리하고 있다. 보고서 내용은 프랑스 법에 따른 판례, 기업들의 조치방법을 소개하는 등 프랑스의 실정에 맞게 구성되어 있어 한국 국내 환경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부패 위험이나 기업의 손실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국내의 기업들도 이해충돌에서 비롯되는 위험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기업가치사슬<sup>5)</sup>과 공급망 확대 등으로 인해 한 국가의 국내법이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업은 글로벌 동향과 표준, 타 국가의 제도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 리뷰에서는 민간(사기업)과 관련된 이해충돌방지 및 관리 방법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살펴보고 기업 및 구독자가 이해충돌방지 체계를 마련하고 발생 가능한 부패 위험을 관리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또한, 사례 돋보기와 마찬가지로 보고서 리뷰도 민간영역에서의 'Conflict Of Interest'를 다루므로 일반적인 범주에서의 '이해충돌'로 해석하였다.

5) 기업가치사슬이란 기업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원재료, 노동력, 자본 등의 자원을 결합하는 일련의 활동을 통해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과정을 말한다. 출처: 최성범, '미디어 경영'(2013).

## 1. 부패위험과 관련된 이해충돌

보고서는 모든 사람이 가지는 광범위하고 고유한 이해관계에 따라 이해충돌을 직접적(당사자 관련), 간접적(친척 등 지인 관련)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해충돌은 시점에 따라서도 과거, 미래 등으로 분류될 수 있고, 다양한 사례 제시를 통해 설명한다.

### 〈이해 충돌 분류별 예시〉

관계	직접적	조직의 채용담당자가 공식 지원자와 개인적으로 관계 있는 경우 이해충돌 발생
	간접적	조직의 이사, 임원 혹은 직원의 친척이 책임자로 있는 외부 업체로부터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결과로 이어지도록 행동 시 이해충돌 발생
시간	과거	감사인은 자신이 감사를 받은 회사나 단체를 마지막으로 감사한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어나 임원으로 임명될 수 없음. (프랑스 상법 L.822-12조)

출처: AFA, Preventing Conflicts Of Interest In The Private Sector(2021, 11)

이때 직무 중 개인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해서 누구나 조직원으로서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아니고, 개인에게 충분한 영향력이 있어 보이는 두 영역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이 일어날 때 개인의 이익을 조직의 이익보다 우선시할 위험, 즉 이해충돌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한다고 간주한다. 보고서는 이해충돌의 위험에서 기업을 보호하려면, 이미 발생한 이해충돌 뿐만 아니라 식별되는 잠재적 이해충돌까지 예방조치를 확대하라고 조언한다.

이해충돌은 존재 자체가 위법은 아니나, 위법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 보고서에 소개된 사례로, 한 보험중개회사의 ‘임원으로서 그의 직무’와 그가 운영하는 ‘타 회사의 경영자, 실 소유자로서의 이익’ 사이에 이해충돌이 발생한 프랑스 형법 판례가 있다. 해당임원은 손해보험 지주회사를 운영하면서 그가 임원으로 있는 보험중개회사를 손해사정사로 선임한 대가로 현금을 받거나 청구서를 위조하여 수수료를 받는 등 부패행위를 하였고, 이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례와 같이 이해충돌은 위법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잠재적인 범죄, 부패의 요소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므로 반부패 프로그램에 이해충돌방지 조치를 포함하여 부패 위험을 예방할 것을 권고한다.

## 2. 이해충돌 상황 식별과 매핑(Mapping)

보고서는 조직 활동이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 식별 방법과 해당 산업, 구조, 거버넌스 등 조직 특성에 맞는 예방 정책을 기업이 개발하기를 권장한다. 모든 임직원이 이미 각각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해충돌 여부나 시기, 방법 등을 예측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해충돌 식별은 철저하게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나, AFA는 식별작업에서 이해충돌 위험에 노출된 임직원과 업무 또는 고위험군을 더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비례적 접근(proportionate approach)’방식 사용을 추천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중개인을 고용하는 경우, 중개인과 현지 당국 간 관계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에 그 국가가 프랑스이고, 이해충돌로 형법을 위반한다면 기업의 상업적 활동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기업은 부패위험 매핑과 제 3자 실사 검토 등을 실시하여 이 사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비례적 접근방식 사용시 주의 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 〈비례적 접근방식〉

<b>중대한 개인</b>		제3자에 대한 조직의 의무가 발생하는 사항에 결정권을 부여받은 개인 혹은 중대한 결정에 영향력이 있는 개인
<b>고위험 사항</b>	1) 고위험 업무	이해충돌 시 조직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업무 - 조달, 판매, 공무, 재무, 투자, 재무제표 작성 및 인적자원 관리 등
	2) 고위험 직책	고위험 직책 식별 후 해당 구성원이 개인의 이익을 우선할 가능성 검토
	3) 고위험 작업	기업을 높은 부패 위험에 노출시킬 가능성이 있는 작업 - 잠재고객 생성 <sup>6)</sup> , 신규 시장 모색, 공공부문 협력, 외부성장기회 추구 등

기업들은 이해충돌 위험 식별작업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문서화하여 맵을 구성하거나 부패 위험 상황의 매핑(Mapping Risky Situations) 과정에 이해충돌 위험을 포함시킬 수 있다. 보고서는 기업이 위험 식별과 매핑을 통해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이며 합의된 관점으로 위험을 대비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밝힌 이해충돌 상황 및 관계를 정리한 문서는 기업의 부패 위험을 업데이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6) 리드(Lead)란 기업이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심있는 잠재고객을 말한다. 리드 생성(Lead Generation)은 잠재 고객을 식별하고 육성하는 행위 또는 프로세스를 뜻하는 마케팅 용어로 여기에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심이 있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 정보 수집하는 활동 등이 포함된다. 출처: 세일즈포스 (검색일: 2023. 05. 31) | <https://www.salesforce.com/kr/hub/marketing/lead-generation/>

### 3. 이해충돌방지 및 관리

보고서는 기업이 이해충돌 식별 결과와 기업 규모, 법적 구조, 비즈니스 분야 및 위치, 제3자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조치를 고안할 것을 제안하면서 시행해 볼 만한 방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제시된 방법은 각 조직 고유 특성과 위험 정도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효과적인 이해충돌 정책을 구축하려면, 부패방지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다른 부패위험 완화 정책과 연계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임직원이 잠재적인 이해충돌 상황을 식별 및 보고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하고, 임직원의 이해충돌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노력 해야 한다. 특히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될 수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해충돌 위험이 높은 업무에 대해서는 직원의 잠재적 이해충돌 선언 및 책임자와의 상담(고용계약 시 이해충돌 조항 포함 가능), 물리적·조직적 분리와 직원 순환 등의 조치를 포함해볼 수 있다.

- **선물 및 접대 관리 정책:** 이해충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업은 관련 규칙을 명확히 설정하고 투명성 제고와 기록 보관 방법 등이 포함된 정책 개발이 필요함
- **대화문화 조성:** 임직원이 이해충돌을 주제로 기꺼이 대화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최고경영진은 모범적 행동으로 직원의 신뢰를 얻어야 하며 명백한 이해충돌에 대한 직원의 보고를 권장함
- **사전 선언 및 내부고발시스템:** 고위험 직책 혹은 공직자와 거래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한편 내부고발시스템을 통해 이해충돌을 제보 받거나 제보 가능하도록 내부고발시스템을 설계하는 방법도 존재한다.

#### 적절한 개선조치 시행

<b>엄격한 임직원 활동 관리</b>	- 더 엄격한 결재 및 감독 절차 도입, 임직원의 업무, 허가, 권한 조정 (예: 이사는 이해충돌이 있는 문제에 대한 투표 또는 이사회 결정에 참여하지 않아야 함)
<b>이해충돌 자신 회피 요구 (고위험 사례)</b>	- 해당 구성원이 이해충돌 상황을 벗어나도록 요구함으로써 범죄로 이어지는 상황 회피 (예: 계약 수여 위원회 또는 공급업체 선정 패널에서 물러나기, 자신의 회사주식 매각)
<b>권한 및 업무 재배정</b>	- 해당 개인이 이해충돌 상황에서 스스로 회피할 수 없거나 거부하는 경우 '이해충돌 당사자의 부하 직원이 아닌 자'에게 해당 권한과 업무 재배정(이 조치에 팀 구조의 유연성, 정보에 접근 제한, 권한 조정 등 임시 조치 도입 필요)
<b>객관적인 의사결정과 기록보관</b>	- 의사결정 과정에 가능한 다수의 참여로 객관성 담보 - 모든 결정사항의 문서화: 조직의 결정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됨 - 이해충돌 등록부(상황분석 포함): 객관적 대응 기준, 의사결정 지침 개발 자료로 이용

공적 영역이 아닌 민간영역에서는 이해충돌 상황에서 개인적 이익 추구가 반드시 위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나 이해충돌 상황에서 임직원의 행위나 결정에 따라 민사처벌이나 징계조치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도 기업의 적절한 관리와 처리가 요구된다. 반부패 행동 강령 개발, 이해충돌 조항을 고용계약에 명시하는 등 이해충돌방지 시스템을 마련한 기업의 경우, 이러한 사내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했다면 사건에 연루된 직원은 고용 계약을 위반했다고 간주할 수 있으며,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및 제재는 정당한 조치로 간주할 수 있다. 2014년 5월 22일, 파리 항소 법원의 판결(사건 번호12/05073)에서는 이해충돌로 해고된 직원이 해고 조치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해당 직원이 기업의 윤리강령과 신의성실의 의무(Duty To Act In Good Faith) 위반하였고,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으며, 외부활동을 은폐하는 등 악의로 행동했기 때문에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처럼 법원은 이해충돌 사건에 판결을 내릴 때 이해충돌방지 조치의 비례성<sup>7)</sup>을 고려하므로, 기업은 조직의 내부 규칙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마련해야 한다.

---

#### 참고

- AFA(Agency France Anticorruption), Preventing Conflicts Of Interest In The Private Sector(2021.11).  
노환진, 이익의 충돌(Conflict of Interest) (2012.02)

---

7) 비례성의 원칙이란 과잉금지의 원칙으로도 불리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제한의 최소성 등을 준수해야 합법적으로 인정된다는 원칙. 일반적인 판례와 학설에 따라 위배 시 위헌으로 간주.

출처: 네이버 두산백과(검색일: 2023. 05. 31)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783391&cid=40942&categoryId=31696>



행동하는  
윤리경영

## 이해충돌방지 정책 작성 매뉴얼



이번 행동하는 윤리경영 코너에서는 미국의 비영리단체SCCE(Society of Corporate Compliance and Ethics)와 HCCA(Health Care Compliance Association)의 '컴플라이언스 윤리 매뉴얼(The Complete Compliance and Ethics Manual 2023)'과 윤리·컴플라이언스 컨설팅기업 NAVEX에서 제공하는 이해충돌 및 외부 고용 정책(Conflict of Interest & Outside Employment Policy(2022)) 샘플과 기업의 실제 이해충돌방지 정책 등을 통해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일환으로 이해충돌방지 정책을 개발할 때 참고할 만한 사항들을 소개하여 이해충돌방지 정책을 구축하려는 기업과 관련 업무담당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

먼저 국내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자문 혹은 상담 등을 거쳐 정책을 구성할 수 있다. NAVEX의 정책 샘플 보고서에 따르면 정책의 표면에는 발효일, 개정 날짜 등 유효 날짜가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기업은 이전 버전을 보관해야 한다. SCCE(Society of Corporate Compliance and Ethics)와 HCCA(Health Care Compliance Association)의 컴플라이언스 윤리 매뉴얼 2023에 따르면, 이해충돌방지 컴플라이언스 정책을 명문화하는 경우, 정책내용 기술에 앞서 범위, 목적, 정의를 명시해야 하는데, 정의에는 이해충돌과 모호한 단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유효 날짜(발효일/개정 날짜 등 표기)]

### 범위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이 정책이 어느 조직 또는 누구에게 적용이 되는지 그 대상을 알려야 한다.

### 목적

회사가 이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발생하기를 원하며, 정책 대상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원하는지와 같은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

### 정의

‘용어정의’를 통해 단어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이는 기업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데 발생 여부에 따라 ①실제 이해충돌, ②잠재적 이해충돌, ③인지된 이해충돌로 분류하여 설명하거나 발생상황 유형에 따라 ①금전적 이해충돌, ②직무상 이해충돌, ③이해관계의 충돌 등으로 나누고, 더 구체적인 상황과 기준 설명을 위해 예시를 기재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이해충돌의 범위가 어떤 활동까지 해당되는지, 주의가 필요한 사적 관계의 범위 등을 명시한다.

NAVEX는 정책에서 존재하는 이해충돌을 모두 규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적어도 자주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정책이라도 작성할 것을 조언한다. 한편, 구성원을 업무별, 직책별, 직급별 등 책임에 따라 분류하고, 각각의 방지대응 원칙을 구축하여 정책 내용에 명시하는 방법도 있다. 다음은 SCCE의 컴플라이언스 윤리 매뉴얼과 NAVEX의 정책 샘플을 참고하여 정리한 내용이다.

### 기본원칙 및 규정

가장 핵심적이고 기업 구성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 필수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이해충돌 상황 발생 시 혹은 인지했을 때 해당 사실을 공개하거나 신고해야 하며, 공개 범위와 절차 등의 대처 방법에 대한 정보가 표기되어야 한다.

또한 강령을 위반하거나 이해충돌로 인한 기업 손실을 방지하고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징계조항이 필요하다. 기업은 고용계약 시 계약서에 이해충돌방지 및 징계와 관련된 조항을 포함한다면, 이해충돌 발생 시 고용계약 위반으로 간주하여 징계조항에 따라 구성원을 징계할 수 있다. 이때 징계 조건, 판단 기준 등이 함께 명시되어야 한다.

- (예시)**
- 공개 범위: 직계 가족을 포함, 회사의 이익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거나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해 관계, 의무를 포함한 모든 이해충돌은 즉시 회사에 공개함으로써 적절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해 충돌은 공개되는 경우에만 회사의 위험을 방지를 위해 관리될 수 있습니다.
  - 징계: 발생했거나 명백하거나 잠재적인 이해충돌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회사 행동 강령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실제 또는 잠재적인 이해충돌을 즉시 공개하지 않는 해당자는 잠재적인 해고를 포함한 징계 대상이 됩니다.

### 위험도가 높은 이해충돌 상황

NAVEX의 샘플 정책에서는 자주 발생하는 이해충돌 특정 사안을 '외부활동', '금전적 이해관계', '선물 및 사례금', '정치활동'으로 규정한다. 공통적으로 직무와 관련된 활동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회사의 이익과 회사에 대한 의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인의 이해관계와 비즈니스 관련성 기준, 그 기준에 따른 업무 수행

가능여부와 대처방안 등에 관한 조항도 필요하다. 금전적 이해관계나 선물 및 사례금에 대한 정책에서 특히 중요한 사항은 ‘금전적 이해충돌’의 기준이다. ‘이해충돌의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에 관한 연구(2021)’에 따르면, 금전적 기준은 사회적 합의로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므로 국내 관련법 등을 참고하여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예시) ● 선물 및 사례금**

- 모든 직원은 잠재 고객, 공급업체, 공급업체 또는 경쟁업체로부터 선물 또는 기타 혜택을 요청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 “선물”에는 음식, 숙박, 교통, 엔터테인먼트 등 가치 있는 모든 것(\*금전적 이해충돌 기준 이상)이 포함됩니다.

### 역할별 의무

SCCE의 컴플라이언스 윤리 매뉴얼의 정책 샘플에서는 의무(Responsibilities)에 대한 파트를 따로 구분하여 모든 이해충돌 해당자, 컴플라이언스 책임자, 위원회, 관리자 별로 각각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행동 원칙을 명시하여 의무를 부여한다.

- ▶ 모든 이해충돌 해당자에 대해 공개 및 보고, 회사의 최선의 이익 추구하고 같은 행동이 권장된다.
- ▶ 컴플라이언스 위원회와 모든 관리자의 의무 조항으로 이해충돌과 관련된 사실, 조치 등의 정보에 대한 기밀유지 원칙이 규정되어야 한다.
- ▶ 직책별로 이해충돌 공개에 관한 태도(‘이해충돌을 공개한 자’에 대한 존중)와 관련 업무(‘공개하지 않은 자’에 대한 징계) 등의 사항도 포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해충돌방지 정책에 대해 더 구체적인 정보(관련 규정, 설명, 자료 등)를 제공하고 싶다면, 추가로 표기하거나 부록으로 제공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제공될 만한 정보들의 예시로는 이해충돌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이 있는 신고서 양식, 문의할 수 있는 부서 혹은 담당자 정보, 참고할 규정 등이 있다.

## 〈이해상충 신고서 양식 예시〉

### □ 신고자

- 소 속 (직 급) :
- 성 명 :
- 이해상충 내역 :

### □ 신고내용

구분	이해상충 발생 요건	확인	
		해당	비해당
1	본인과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직접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3	최근 2년 이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퇴직직원과 업무 상 직접 관련 있는 경우		
4	학연, 혈연, 지연, 종교 등으로 관련 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5	기타		

상기와 같은 이해상충 관계의 발생으로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준 법 감 시 인 귀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참고

- SCCE&HCCA(2023), The Complete Compliance and Ethics Manual 2023
- Navex(2022), Conflict of Interest & Outside Employment Policy
- Siemens Group(2019), Code of Conduct Brochure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2021), '이해충돌의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에 관한 연구'
- 매일경제(2021.08.10), '공정하고 투명한 내부고발제도 운영은 ESG의 핵심지표' <https://www.mk.co.kr/news/stock/9983677>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검색일: 2023.05.25) <https://law.go.kr/LSW/admRulBylSc.do?menuId=9&subMenuId=57&tabMenuId=267&query=%EC%9D%B4%ED%95%B4%EC%83%81%EC%B6%A9>



문화 속  
기업윤리

## 윤리 실천과 이해충돌, 도서 ‘왜 원칙은 흔들리는가’



\* 이미지 출처: 교보문고

한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기업의 비밀 정보를 취득하였고, 그 기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률이 날 수 있다 것을 알게 되었다. 만약에 당신이 그 공직자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물론 이러한 투자는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로 불법이므로 행동으로 옮겨서는 안되고, 공적인 의무에 책임을 다 하는 것이 윤리적인 행동이다.

그렇다면 왜 비윤리적인 행동이 벌어질까? 윤리적인 원칙을 모르기 때문일까? 도서 ‘왜 원칙은 흔들리는가’를 통해 저자는 사람들이 윤리와 원칙에서 벗어나는 선택을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원칙에 걸맞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소개한다. 도서에서는 윤리적 선택을 어렵게 하는 원인 중 하나로 이해충돌로 꼽으며, 이해충돌 상황에서 ‘인센티브’가 비윤리적 행동을 유발한다고 본다. 어떠한 유혹이나 ‘인센티브’와 같은 개인의 이익이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와 충돌할 때,

비윤리적 행동인 것을 알지만 자신의 가치관과는 다르게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라는 속담처럼 예외적인 비윤리적 행위들이 모여 ‘부정’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비윤리적 행동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자는 윤리적 선택과 관련하여 이 책의 또 다른 파트에서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고 사소한 예외를 허용할수록 원칙 기준이 변화하는 것에 대해 설명한다. 이는 ‘표준의 조정(Standard Adjustment)’이라고도 하는데 표준 또는 원칙에서 한 발짝 벗어나게 되면 처음에는 그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를 정당화하려고 하나 한번 이동된 원칙은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으며 새로운 표준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원칙과의 작은 편차가 보일 때 바로잡아야 함을 당부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시행된 지 이제 1주년이 되었다. 공공기관 및 공기업들도 이에 맞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사내 제도를 속속들이 구축하고 있다. 이해충돌 상황에 처한 당사자의 비윤리적 행동을 방지하고 이해충돌로 인한 부패와 불공정이 당연히 옳지 않은 것으로 모두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적 대응 원칙 정착을 위한 노력들이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업무편람(2022.03)



뉴스클리프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경영 동향

### 국민권익위, '기업 청렴윤리경영' 첫 안내서 발간 예정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업이 환경·사회·투명경영(ESG)의 핵심 요소인 반부패 규범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사항을 정리한 '기업용 청렴윤리경영 실천' 첫 안내서를 상반기 공개할 예정으로 이를 통한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핵심 요소인 반부패 규범 대응력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제 ESG 공시 및 투자 중요도가 높아지고 국내 기업의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국내외 ESG 공시 및 반부패 규범 분석, 공개 토론회 등을 거쳐 안내서 방향을 결정한 후 정책자문단 간담회, 경제단체 실무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전문가·이해관계자와 '기업용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하 청렴윤리경영 CP) 안내서 초안을 개발하고 있다. 안내서는 기업의 부패유발 요인을 예방·개선하기 위해 공급망 관리, 내부고발 체계 등을 비롯해 ESG 경영 및 반부패 규범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다. 특히 국제 지침·규범 등을 상세히 수록해 기업이 이를 쉽게 파악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 방안을 점검표 형식으로 제공한다. 안내서 공개 이후에는 설명회·교육 등을 실시해 국내 기업이 청렴윤리경영 CP를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 5월 4일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45101](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45101)

### 국민권익위, '공정채용' 정착 위해 청년층과 소통나선다

2023년 5월 10일 부산광역시청에서 열리는 '부산지역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설명회'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부의 공정채용 정착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알리는 소통의 자리가 마련됐다. 이번 채용설명회는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위원회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시가 주관하였으며 참여기관은 부산혁신도시 이전기관(12개),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8개), 금융기관(2개), 대학교(13개)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정과제인 '공정한 채용기회의 보장'을 위해 부산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설명회에서 올해 1월 출범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홍보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는 현재 청년층이 겪고 있는 일자리 문제와 함께 채용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으며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 제공이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부패방지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는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통해 공공부문 불공정 채용을 바로잡아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3년 5월 10일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45164](https://www.acrc.go.kr/board.es?mid=a10402010000&bid=4A&act=view&list_no=45164)

## 국내외 동향

### ESG성과에 따른 성과급제 확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열풍으로 미국에선 ESG 실적을 임원 성과급에 연동하는 기업들이 점차 늘고 있다. 기업 주주활동을 평가하는 저스트캐피탈(Just Capital)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중소형주(시가총액 1위부터 1,000위)에 속하는 금융·산업·헬스케어 분야의 가치주들이 모여있는 '리셀1000'에 속한 기업의 절반 가까운 43%는 임원 성과급 결정에 ESG와 관련된 핵심성과지표(KPI·Key Performance Indicators)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조사 때는 이 비율이 14%에 그쳤으나 2021년에는 18%, 2022년에는 28%로 꾸준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ESG 이슈들은 기업의 건전성과 경쟁력과 연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관련 이슈들이 성과급 결정에 점점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다른 이유로는 투자자들의 압박도 거론되고 있다. 한편, 미국의 마스터카드와 파파존스 등의 회사가 ESG 실적을 임원급 아래 직급 직원들의 성과급과 연동하려는 시도도 눈에 띈다. 전문가들은 ESG 실적을 임원이나 직원의 성과급과 연동시킬 때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선 목표 대비 실적 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계량화할 수 있어야 하지만 아직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CNBC 2023년 5월 14일

<https://www.cnbc.com/2023/05/14/at-chipotle-papa-johns-the-links-between-bonus-pay-and-esg-grow.html>

### EU, '부패 연루' 제3국 인사도 독자제재 대상에 포함키로

유럽연합 EU가 독자제재 대상에 뇌물 수수, 횡령 등 부정부패에 연루된 제 3국 인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5월 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집행위원단 주간회의에서 유럽연합과 비(非)유럽연합 국적 부패 연루 인사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기 위한 새 제재 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부정부패 행위가 EU의 공동 외교·안보 목표에 심각한 영향을 주거나 위협하게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EU 입국 금지, 자산동결 등의 제재 대상에 추가된다. 기존에 시행되던 제재 제도의 제재 사유로 부정부패는 명시돼 있지 않았다. EU 집행위는 심각한 부정부패 행위도 민주주의와 법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새 규정 마련의 이유로 밝혔다. 새 규정이 시행되려면 집행위, 유럽의회, EU 이사회 간 3자 협의 타결 뒤 의회와 이사회 의 최종 승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SBS 뉴스 2023년 5월 3일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178711&plink=ORI&cooper=NAVER](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178711&plink=ORI&cooper=NAVER)

■ EU 집행위원회 2023년 5월 3일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3\\_2516](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3_2516)

## 국내외 동향

### 금융위 'ESG 공시 의무화' 로드맵 3분기 발표 예정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가 의무화된다. 시간을 두고 차례로 공시 의무화 대상 기업이 확대돼 2030년엔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5월 12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사옥에서 열린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3차 릴레이 세미나'에서 올해 3분기에 국내 ESG 공시 제도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3분기에 발표할 로드맵에서 ESG 공시 의무화 대상 기업, ESG 공시 기준, 제3차 검증 체계에 대한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현재 금융위는 2025년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중심으로 ESG 공시 의무화를 시작해 2027년 자산 1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 기업, 2029년 자산 5000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 기업, 2030년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넓힐 계획이다. 금융위는 기업의 현실적인 부담을 감안하여 ESG 공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초기에는 한국거래소 공시 체계하에서 기후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하여 순차적으로 사회와 거버넌스 분야 등으로 확산한다. ESG 검증 체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는 기업이 ESG 공시 정보에 대해 독립 기관의 검증을 받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 조선 Biz 2023년 5월 12일

[https://biz.chosun.com/stock/stock\\_general/2023/05/12/XVLCWQ2ZQZHDVPLT22BF2GLCYE/row-2023-03-29/](https://biz.chosun.com/stock/stock_general/2023/05/12/XVLCWQ2ZQZHDVPLT22BF2GLCYE/row-2023-03-29/)

### 기업 보는 눈 달라졌다, 호감 이유 '국가 경제 기여', 비호감은 '준법·윤리경영 미흡'

2023년 3월 13일 대한상공회의소는 50주년 상공의 날을 맞아 전국 20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우리 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호감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밝혔다. 기업호감지수는 국민들이 기업에 대해 호의적으로 느끼는 정도를 지수화한 것으로 국가경제 기여와 ESG경영, 생산성, 국제경쟁력, 사회공헌 등 5가지 요소와 전반적 호감도를 합산해 산정한다. 이번 조사에서 기업 호감지수는 55.9였다. 10년 전인 2013년 같은 조사에서 기록한 48.6에 비해 7.3점 증가했고 조사를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높았다. 기업에 호감을 갖는 이유로는 '국가경제 기여'가 55.4%로 가장 많았고 이에 비해 호감을 갖지 않는 이유로는 '준법·윤리경영 미흡'이 64.3%로 가장 많았다. '우리 기업인들의 기업가 정신이 10년 전보다 높아졌다'는 응답 비율은 27.1%였다. '낮아졌다'는 23.6% '비슷하다'는 49.3%였으며 기업에 바라는 우선 과제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59.1%였고 '근로자 후생복지 향상' 46.4%, '신제품 개발 서비스 개선 등 고객 만족' 39.4%, '환경·지역사회 문제 해결' 34.8% 등이었다.(복수응답)

■ 노컷뉴스 2023년 3월 13일 <https://www.nocutnews.co.kr/news/59085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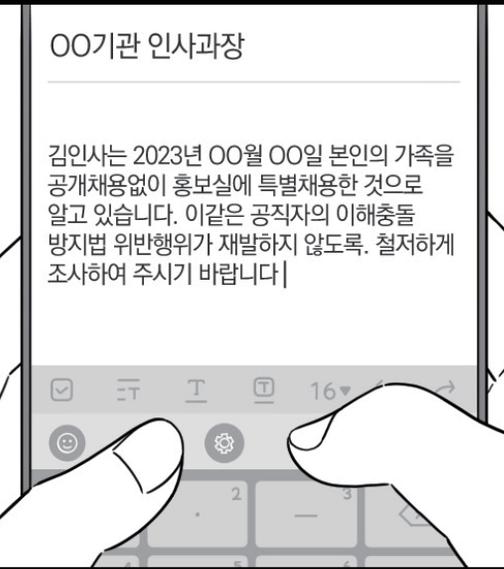
■ 동아일보 2023년 3월 14일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0313/118314133/1>



# 윤리적 직무수행과 이해충돌방지

웹툰

## 윤리네컷



\*참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업무 편람



행사소식

## 2023년 대한민국 ESG 대상 안내

'ESG를 통한 지속가능성 추구(Pursuing Sustainability through ESG)'를 주제로 ESG 본질적 사회적·윤리적 가치의 발전과 ESG활동의 공적을 격려하기 위하여 '대한민국ESG대상'에서 매년 개최하는 행사. ESG 각 분야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되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사회적 가치 공유에 기여한 국내기업,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 주최** 한국서비스산업진흥원, 대한민국ESG대상 조직위원회  
**일정** 2023년 8월 23일(수)  
**접수기간** 2023년 8월 23일(수)  
**장소** 국회의원회관  
**참고** [http://www.ksq.or.kr/bbs\\_shop/read.htm?board\\_code=board&idx=85191](http://www.ksq.or.kr/bbs_shop/read.htm?board_code=board&idx=85191)

## Reuters Events: IMPACT Congress London 2023

Reuters가 리더, 비즈니스 최고 경영진 및 미래 지향적인 혁신가를 한자리에 모아 기후 행동을 주도하는 글로벌 리더십, 지속가능경영 리포팅, ESG 투자, 넷제로 네 가지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 리더들의 협력과 행동을 주도하기 위해 개최되는 회의

- 주최** 로이터(Reuters)  
**일정** 2023년 9월 6일(월)~9월 7일(목)  
**장소** 영국, 런던 하운즈 디치  
**참고** <https://events.reutersevents.com/impact>





## 청렴윤리경영 강사 모집 안내

안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은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렴윤리경영 교육과정에서 강의 활동을 수행할 강사를 모집하오니, 청렴윤리경영 강의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 개요

- ① 강의분야 :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 대상 청렴윤리경영교육
  - ※ 청렴윤리경영의 개념, 최신 해외 동향 및 관련 법령, 우수사례, 국내외 컴플라이언스(CP) 제도 등에 대한 이론강의 수행
- ② 모집대상 : 청렴윤리경영에 대한 이론/실무적 지식 및 강의력을 겸비한 자
  - ※ 공직유관단체·민간기업 청렴윤리경영 업무 담당자(감사, 윤리경영 등 담당 부서 근무자), 연구 및 강의 경력이 있는 학계·관련단체 전문가 등
- ③ 모집기간 : 2023. 6. 19.(월) ~ 2023. 7. 7.(금)
- ④ 선발방식 : 서류평가 및 강의시연평가를 통해 선발
- ⑤ 유의사항 : '청렴교육 전문강사'와 같은 별도 자격 미부여

### 청렴윤리경영교육 개요

- ① 교육목적 : 공기업 등의 청렴윤리경영 문화 확산, 윤리적 딜레마 해결 능력 배양 및 조직 내 청렴윤리경영 제도 구축 능력 습득 지원
- ② 교육대상 :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③ 교육방식 : 청렴연수원 원내 집합교육 및 기관 방문교육

※ 자세한 사항은 청렴연수원 홈페이지(educ.acrc.go.kr) > '연수원 소식' 탭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청렴윤리경영 강사 모집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교육지원과 백인혁 주무관(☎043-901-6113)에게 유선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 다음 중 이해충돌 상황에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공직자의 업무 숙지 미흡
- ② 공직자가 자신의 친척 회사에 업무 발주
- ③ 동료 직원과의 의견 갈등
- ④ 업무 중 차량 충돌사고 발생

**퀴즈 응모**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esg@assist.ac.kr) 앞으로  
정답과 성함, 연락처(휴대폰 번호)를 보내주세요(6월 24일 까지).

정답을 보내주신 분 중 5명을 추첨하여 모바일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상품 발송을 위한 정보로만 활용되며, 추첨 이후 파기됩니다.



지난 호 정답자는  
**신병주님, 이성우님, 정재원님, 한승준님, 황경연님**입니다.  
축하합니다!!

### 민원상담 신청부터 결과확인까지 온라인으로 한번에 끝내기

법령·제도·행정 등 민원상담은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http://www.epeople.go.kr)

- ① 상담신청      국민신문고 ▶ 민원상담·안내
- ② 상담관지정    민원 내용에 따른 상담관 지정
- ③ 사실관계조사    관계 법령 검토 및 자료조사로 사실관계 확인
- ④ 결과확인      국민신문고 ▶ 민원상담 신청결과

